

詩碑로 전하는 조주 '차 한잔' 공안

10월19일 中 백림선사서 제막식 한중 문화교류 기념 학술대회도

'차나 들고 가시게(喫茶去)'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연원이 된 화두 '깍다꺼'는 1200여년간 선과 차를 연결시켜온 중요한 화두다. 불자들은 물론 차인들에게 '깍다꺼'란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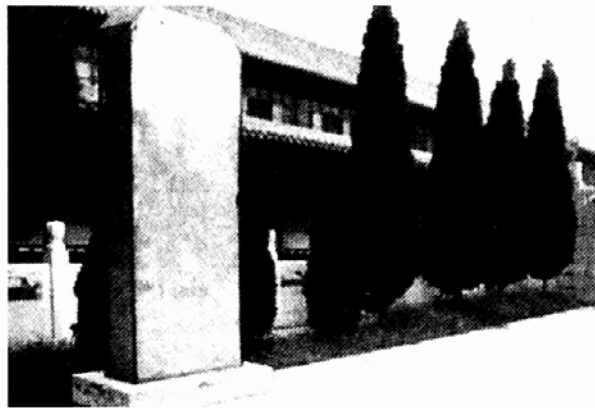
조주선사 사리탑에 새겨져 있는 조주선사의 영정(복본).

삼십의 도리를 일러준 조주종심(趙州從諗:778~897) 선사를 기념하는 차 시비가 스님이 주석했던 중국 북쪽성 조현시 백림선사(백림선사)에 세워진다.

조주선사 차 시비 건립 문화사업단(단장 진제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과 백림선사주지 정혜스님은 10월 19일 백림선사 경내에서 한중 우호기념 조주선사 차 시비 제막식을 갖는다.

백양사 방장 서용스님이 증명한 2m 높이의 이 차비 앞면에는 조주선사의 행적과 한중 법맥의 원류, 차선 일미의 사상을 기록하고 비 뒷면에 동참자들의 이름을 명기하게 된다.

서용스님은 "조주선사 선차 비명



조주선사 차시비가 건립될 백림선사의 경내 백림선사 중수비(왼쪽) 옆에 세워진다. 송'을 통해 "여래가 누워 있음이여 상서로운 모양이 아니고(如來臥兮非瑞像)은 기쁨과 큰 쓰임이 상인도 측량하기 어렵도다(全機大用難測). 세치의 연한 혀가 방과 혀를 뛰어넘으니(三寸軟舌超亡測) 조주조사가 차를 마시니 오래도록 그 빛이 끊이지 않도다(趙州喫茶永不息)"라고 노래했다.

처음으로 조명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북경대 루우열(중국철학) 교수가 '조주 선사의 선사상'을, 백림선사 강주 명혜스님이 '백림선사에 대한 고찰', 부산 미륵암 주지 백운스님이 '조주선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최석환 불교문화사장이 '조주의 다선정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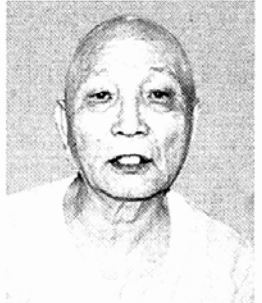
이번 조주선사 차비 건립은 달마대사로 부터 조주-석옥-태고로 이어지는 한국 선맥의 복원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 전망. 실무를 주관한 불교문화사 최석환 사장은 "중국 선맥은 일제에서 석옥, 태고로 이어진다"면서 "조주선사는 신라 사자산문을 연 도원선사와 법형제 관계로 조주선사 차 시비 제막은 한중 선맥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당나라 때의 고승인 조주 선사는 송대에 형성된 선종오교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화두를 많이 남겨 후대 선승들의 수행 과제를 제시했다. <백암록>에 전하는 100개의 화두중 12개가 조주선사의 것으로, 특히 무자화두(無字話頭)와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돌알의 자나무가 유명하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전쟁 나면 공멸" 30여년간 군포교

가평사암련 무공스님



"전쟁이 나면 공멸합니다. 끝없는 복수를 낳는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는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평화롭게 잘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기도 가평지역은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이다. 서울과 춘천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산업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노인층이 많은 지역주민의 종교분포도 불교에 이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런 포교취약지역에서 30여년간 군법당에서 법문하며 군포교를 지원해 온 스님이 있다. 바로 가평군 불교사암련회장 최무공스님(정오사 주지)이다.

서 정진하면서도 군불교진흥회 이사를 맡는 등 군포교에 대한 열정을 늦추지 않은 것이다.

무공스님은 사암련의 포교활동도 결국은 불자 개인에 대한 신심과 수행의지를 높이는 데 귀결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군법당의 법회와 각종 안보강연을 통해 불교를 모

대를 빼고 1군 안보강연 군인 정서 순화 도 마음공부를 예하의 군법 당을 안가본 곳이었을 정 마을회관·꽃동네 돌며 봉사 80여개의 회

대를 빼고 1군 안보강연 군인 정서 순화 도 마음공부를 예하의 군법 당을 안가본 곳이었을 정 마을회관·꽃동네 돌며 봉사 80여개의 회

에 매진해 온 무공스님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법당 지원을 통해 군인들의 정서순화와 마음공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사찰을 거느린 가평사암련의 역사는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공스님이 회장 소임을 맡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서원 때문이다.

77세의 노구에도 군포교에 대한 정열이 식지 않은 무공스님은 1950년 부산 동대구에 재학중 학도병으로 징집돼 62년 대위로 전역, 같은 해 법어사에서 전 조제종종정 고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젠 젊은 스님네들이 회장을 맡아야 할 텐데..."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모시고 참선정진하는 등 제법선원에서 정진하다가 8년간 토굴에서 정진하기도 했다. 이후 30여년간 홀로 폐사가 된 청우산 청오사에

가평=김재경 기자

남양주 무량사 납골묘원 조성

부지 3만평...50억 들어

남양주시 무량사(주지 흥선)는 사찰 인근 3만여평의 부지에 건평 250평의 현대식 납골당인 '불안당'을 건립하는 등 납골묘원 '심석묘원'을 건립한다. 흥선스님은 10일 심석묘원 토목공사를 완료, 종교부지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불안당은 향은, 향승 냉난방 시설과 탈취, 환풍장치 등을 갖춘 중앙 제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천정의 대형 유리돔과 사방의 채광창을 통해 항상 자연광이 들어와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실내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자기 납골기, 옹나무 납골함 등 예술적인 납골장을 갖춰 편안한 마음으로 영가를 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 공원에는 12기를 함께 봉안할 수 있는 가족부도탑도 분양해 가족성묘도 가능하게 했다.

고양시불교사암련협회 회장이기도 한 흥선스님은 "고양시에 타베트 불교문화원을 설립, 불교문화 포교에 나선 경험을 살려 남양주시 무량사에 있는 장례, 사회복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031)594-5552 남양주시=김재경 기자

22일~12월28일 봉림사 백고좌 법회

경남 창원 봉림사(주지 운남)는 9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법당에서 봉림산문 중흥을 위한 제2차 백고좌 대법회를 연다. 12월 28일 대승보살계 수계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백고좌 법회의 일정이다.

△9/22 (토) 성수 스님-황대선 원 조실 △9/28 (금) 화엄 스님-김해 동림사조실 △10/5 (금)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10/12(금요일) 화산 스님-대구 보광원조실 △10/19(금) 종호 스님-동국대 선

학교 교수 △10/26(금) 지안 스님-통도사 강주 △11/2 (금) 정락 스님-수원용주사 주지 △11/9 (금) 호명 스님-통도사 한주 △11/16(금)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 원장 △11/23(금)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11/30(금) 도업 스님-동국대 불교문화원장 △12/7 (금) 현각 스님-동국대 교수 △12/14(금)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12/21(금) 보광 스님-전 해인사 주지 △12/28(금요일)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055)237-2266

"육망 넘치면 인류파멸"

청화스님 군산불자에 설법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감지식)는 5일 군산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립4주년 기념 청화 큰스님(사진) 초청법회를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지난 47년부터 일종식과 오후불식, 묵언,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수행 방편으로 삼아온 청화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지금처럼 인류가 방만하게 살아가는 파멸에 이를 것이니 절제하고 육망을 줄이려"고 당부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통도사 사보 '등불' 포교 20년

산사음악회·전시 등 기념행사

영축동림 통도사(주지 현관)가 월간 사보인 <등불> 창간 20주년을 맞아 등불 축제를 기획,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통도사는 23일 오후1시부터 등불 축제를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등불> 전시, 독자 퀴즈 잔치, 독자와의 대화, 불자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성년을 맞은 등불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게 된다. 또한 작은 산사음악회에서는 통도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쿠산티 봉사단원의 고전무용 공연 등이 어우러져 볼거리



타블로이드판 4면을 발행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30호-32호 8면 발행, 33호-37호 16절 형태의 변화를 거쳐 75호부터 16절 12면의 정식 사보의 격을 갖추어 현재에 이른 <등불>은 지령 238호를 맞으며 사보 중 보기드문 역사를 자랑하는 대중포교지로 자리잡았다. (사진) (055)382-7182

부산=천미희 기자

전문포교사 과정 개설

부산 지역에도 전문 포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포교사 전문 아카데미 과정이 문을 열었다.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황소성)은 9일 '포교사 전문 아카데미 과정' 입학식을 거행하고 2년 과정의 교육에 들어갔다.

60여명이 수강 등록을 마친 포교사 전문 아카데미 과정은 불교상담심리학, 포교방법론, 불교수행론과 수행법 지도, 불교와 현대사회학 등의 이론과 포교실무과정, 현장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원각사 경로 바자 열어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임익수)는 올해 처음으로 경로잔치 기념마련을 위한 바자 '아나바다'를 7일 원각사 도당에서 가졌다.

이번 '아나바다'에서 거래된 품목은 불교용품, 염주, 스님글씨, 가정집 기류 등으로 송광사나 대원사 스님들도 기꺼이 아끼던 물품을 내놓아 훈훈한 이웃사랑의 자리가 됐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9,900원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밤은길 아바타 센터.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경 상

사찰의 강연에서 쓰는 전통적인 경상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섬세한 조각!!

이음새 부분은 용을 파서 제작!!

- 특징 : 이음새 부분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홈을 파서 제작하였습니다.
- 재질 : 알마시카
- 규격 : 가로 74cm x 세로 33cm x 높이 30.5cm
- 가격 : 130,000원

37°氣 배개

※ 프리폼(FREE FOAM)이란?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한 저탄성/고밀도 충격 흡수 소재입니다.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짙은 두통·불면증·어깨결림·심한 코골이에 시달리시는 분
- 재질 : 프리폼(FREE FOAM) + 커버(면 100%)
- 색상 : 아이보리, 하늘색 ● 가격 : 69,000원

발명특허 제0188231호 Live soul기(氣) 암석

37°氣 방식세트

- 특징 : 지압효과·보온/방습효과·항균작용 미끄럼 방지·개성있는 디자인
- 효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남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불량
- 재질 : 발포체(폴리우레탄)
- 색상 : 연보라, 베이지
- 구성 : 방식 + 등받이(의자용)
- 가격 : 40,000원

미농 혼식 세트

아직도 흰 쌀밥만 드십니까?

신비한 효능을 지닌 버섯들의 균사체를 식이섬유와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 순 국내산 현미/보리쌀에 배양시켜 버섯이 가지는 우수한 성분을 매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기능성 쌀입니다.

- 구성 : 상황버섯 쌀 (800g) 동충하초 쌀 (800g) 영양균형 혼식 (720g) 상황보리 쌀 (750g)
- 총중량 : 3070g ● 가격 : 33,000원

동(銅)공예 달마도

100% 수작업의 동(銅)공예 달마도는 엄선된 동공예 작가들이 명예를 걸고, 전체 18번의 수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명품입니다.

- 사이즈 : 가로 38cm x 세로 44cm
- 가 격 : 120,000원
- ※ 100% 수작업으로 제작된 러블리라 상기 작품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송기간은 4일정도 소요됩니다.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마하몰이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02)732-1522